



뉴 인터넷 시대 여는 '글로벌 IPv6 서밋 2004' 성료

지난달 5일부터 3일간 롯데호텔서 개최 ... 관계자 500여명 참석 성황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의 시장 현황과 기술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글로벌 IPv6 서밋 코리아 2004'가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부와 IPv6포럼코리아가 주최한 것으로 올해가 IPv6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원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의 IT839 전략수립과 관련해 IPv6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글 / 신종훈 기자

정보통신부와 IPv6포럼코리아가 주최한 이번 '글로벌 IPv6 서밋 코리아 2004'는 'IPv6 : 새로운 IT 인프라(New IT Infra!)'를 주제로 IPv6가 IT 산업 전반에 끼치게 될 영향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들이 다뤄졌다.

IPv6의 기술동향과 시장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패널토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CEO급 IPv6 전문가들이 참여해 IPv6가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서 어떠한 비즈니스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IPv6는 정보통신부가 IT839 전략의 일환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BcN, USN과 함께 3대 차세대 인프라의 하나"라고 밝히고, "IPv6 등 차세대 IT인프라를 조기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 IT인프라 구축과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주체들간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IPv6 추진 정책 소개

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각 세션들을 살펴보면 먼저 각국의 IPv6 정책 및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세션에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정책 및 전략들이 소개됐다.

미국은 국방성(DoD)의 IPv6 도입정책과 함께 관련 시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 국방성은 미래 전투에서 IP 중심의 유비쿼터스 장비에 대한 이동성 및 보안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고, 2003년도부터 IPv6 초기 전환 단계를 거치면서 2008년까지 순순한 IPv6 네트워크 망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IPv6 관련정책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까지 보유하고 있는 IPv4 주소는 약 4,000만개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 주소자원이 인구에 비례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5년말까지는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IPv6 소륨을 설치하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IPv6를 알리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 기관들과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e재팬 전략을 기본으로 IPv6 전환을 위한 R&D 테스트, 네트워크 구성, IPv6 응용을 위한 홈 네트워크 장비, 의료 장비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ISP를 대상으로 IPv6 활성화를 위한 세계 혜택 프로그램과 IPv6 프로모션을 구성하는 등 연간 800억엔 이상의 지원 예산을 책정해 시장활성화를 위한 부흥책을 구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핀란드 등이 IPv6 테스트포스를 결성, 범 유럽권 내에 IPv6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



▲ 아이비트의 출품작 '포식스 2000R'

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내 이들 주요 국가들은 IPv6의 도입에 필수적인 DNS 서비스를 위해, Renater라는 유럽의 IXP(Internet eXchange Point)가 운영하는 AFNIC을 통해 DNSv6 시범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유럽은 대규모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홈네트워크나 인터넷 자동차 같은 소규모 무선 네트워크에도 IPv6를 적용하기 위해 연구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통부, IPv6 시범서비스 본격화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발맞춰 우리나라 역시 국내 IPv6의 보급이 IPv4의 주소 고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뿐 아니라 광대역 통합망(BcN) 구축에 적합한 기초 환경이라고 보고, 지난해 정보통신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IPv6 전략협의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IPv6 상용서비스 시장을 확산시키고 국산화 기술을 도모하기 위한 'KOREA v6' 시범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이미 10개 시범서비스 과제업체를 선정, 이달부터는 IPv6 시범서비스 사업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9월부터는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통신 네트워크 자원을 IPv6 기반으로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IPv4 주소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6년 이전까지 IPv6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IPv6 기술개발에 소홀했던 국내 대기업 및 중소 벤처업체들의 이 시장 진입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ETRI가 국산 최초의 IPv6 라우터 모델을 내놓은 데 이어,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시작으로 IPv6 라우터, 응용 단말기 국산화 작업에도 가속을 붙일 전망이다. 이들 국산 IPv6 기술들은 한국전산원이 주도하는 KOREA v6 시범서비스 과제를 통해 안정화 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 모델로 선보일 예정이다.

IPv6 주요 제품군 대거 선보여

이러한 계획에 앞서 이번 행사에서는 'IPv6 드림 커넥션(Dream Connection)'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에서 개발된 IPv6

관련 장비 및 응용 서비스들이 전시회를 통해 대거 선보여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15개 기관에서 약 25종의 장비 및 응용제품들이 선보였는데,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인 IPv6 라우터와 응용 단말기들을 처음 선보인 것을 비롯해, 아이비트, 위즈네트, 모다정보통신 등 IPv6 연구개발 업체들에서도 새로운 IPv6 시대를 열어가길 라우터와 각종 IPv6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자체개발한 IPv6 에지급 백본 라우터와 중소형 스위치를 처음 선보였는데, 이들 IPv6 라우터와 스위치 장비는 현재 삼성그룹내 네트워크망에 적용돼, 시험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 연말경에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삼성전자는 기존 모바일 PDA 폰 모델인 'MITs'에 IPv6 기술을 적용, 일반 사무실이나 소호 작업장내에서 모바일 IP폰과 CDMA 이동전화 서비스를 같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델을 처음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선보인 IPv6 모바일 폰을 주로 기업용 시장을 공략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LG전자도 중대형급 IPv6 라우터를 개발, 이를 연말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일반 가입자들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IPv6 인터넷 폰 단말기 모델도 같이 전시했다.

아이비트는 세계 최초로 IPv6 레디로고 인증을 획득한 IPv4/IPv6 변환기와 새로 개발한 중소형 IPv6 라우터를 출품했다. 또 위즈네트는 IPv6가 자체 지원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출품했으며, 위즈정보기술은 홈네트워크를 위한 IPv6 기반의 PLC(전력선통신) 가전제어 시스템을 전시했다.

국내 연구기관 중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자체 개발한 IPv6 기가비트 라우터(IPv6 Gigabit Router)를 비롯한 IPv6 핵심 장비와 IPv4/IPv6 변환장비인 6TALK 모델, 그리고 퓨처시스템, 에스넷시스템과 공동 개발한 IPv6 VPN(가상사설망) 장비와 IPv6 망관리 시스템 등을 각각 선보였다.

또 한국전산원에서는 이미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IPv6 포털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모다정보통신에서는 IPv6 기반의 VoIP 서비스를 직접 시연해 보임으로서, 향후 차세대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대에 IPv6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줬다.

이외에도 시스코시스템즈, LG히다찌, 주니퍼네트웍스 등 글로벌 네트워크 업체들 역시 IPv6를 지원하는 자사의 제품군들을 선보여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번 행사와 함께 IPv6를 비롯해 이대 3대 인프라가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이달중에 3대 IT 인프라 전략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